



기보-광주회생법원, 中企 재도약·기술거래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광주회생법원과 지난 13일 광주 동구 광주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파산기업 부활을 위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성주 광주 회생법원장, 박준선 기보 전무이사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심전도 AI 검사' 실시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심전도 AI(인공지능) 기반 심장질환 조기 진단프로그램을 택배기사 대상 현장 순회 건강검진에 도입·실시한다. 1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현장 순회 건강검진은 인증된 전문가가 전국에 있는 300여개 택배 서브터미널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정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CJ대한통운



네이버 커넥트재단, AI 특수교육 콘텐츠 협력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특수교육 플랫폼에 맞춘 AI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왼쪽부터)국립특수교육원 김선미 원장과 네이버 커넥트재단 공기중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



KB국민은행-NICE디앤알, 포용금융 실천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기업 데이터 및 플랫폼 전문 기업인 NICE디앤알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왼쪽부터)남영민 NICE디앤알 대표이사과 김현욱 KB국민은행 기업고객 그룹 부행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서울시 청년·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

우리은행은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정일 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 이사과 오지영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이 참석해 금융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은행

‘미래의 집’ 그린 삼성전자… 세계 디자인 어워드 석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8개 수상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
차세대 키즈 로봇 ‘드리모·미니모’

삼성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 2개를 포함해 총 8개의 상을 휩쓸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개와 본상 6개를 수상했다. 최고상은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과 키즈 로봇 '드리모와 미니모'에 돌아갔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수상은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레드닷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고상 2개를 포함해 총 16개의 본상을 받았다. 이번 성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

과까지 더하면 올해 레드닷에서만 최고상 4개 등 24관왕이다.

배경에는 디자인 경영 강화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3M과 펄스코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난 마우로 포르치니를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했다. 외국인이 디자인 총괄 자리에 오른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취임 후 개인의 다양성과 표현을 중시하는 '익스프



AI뷰티 미러.

/삼성전자

레시브 디자인(ExpressiveDesign)'을 새 디자인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고상을 받은 가전 소모품 선행 콘셉트 디자인은 색상만으로 소모품 관리 방법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반영구 부품은 회색, 재활용 가능 부품은 녹색, 일반 폐기 대상은 갈색으로 나눠 설명서 없이도 올바른 처리법을 알 수 있다. 이 콘셉트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6 금상, IDEA 2024 금상에 이어 레드닷

최고상까지 받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드리모와 미니모는 AI로 아이의 관심사와 성장 단계에 맞춘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키즈 로봇 콘셉트다. 가정용 본체 '드리모'와 휴대형 '미니모'가 연동돼 아이가 직접 만든 생생한 AI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AI 동반자' 비전을 담았다.

본상 수상작은 ▲피부 상태를 분석해 맞춤 케어를 제안하는 'AI 뷰티 미러' ▲화면 구성을 자동 최적화하는 '파노라마 UX' ▲무안경 3D 대화형 플랫폼 '스페이스 탭' 등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익스프레스브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장애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GITC 열어 IT활용능력 향상 도움
AI 역량까지 갖춘 인재 육성 초점

LG전자가 장애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교육부터 IT 경진대회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오는 15, 16일 양일간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다.

GITC는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IT 활용능력 향상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대회다.

이번 한국대회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장애 청소년 60명이 참가해 ▲AI 기반 정보 검색, 문서 작업 등을 다루는 e-Combination ▲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 ▲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

ent ▲AI를 활용해 동작·음성·표정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을 만드는 e-Interactive 등 총 4개 종목을 겨룬다. 최종 선발된 4명은 10월 2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한다.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취업 시장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장애 청소년들에게도 AI 기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전자는 GITC를 통해 단순한 IT 경진대회를 넘어 AI 활용 역량까지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한국대회에 앞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협력해 전 참가자들에 게 생성형 AI 활용, 영상제작, 블록 코딩 등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제공했다. 대회와 별개로 참가자들이 일상 혹은 미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한국대회를 거쳐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는 9월 중 별도 집중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NC문화재단, 박현민 작가 신작 출간

그림책 '엄청난 막대기'

NC문화재단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카치상 수상자인 박현민 작가의 신작 그림책 '엄청난 막대기'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청난 막대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노트에 그은 한 줄의 선이 실제 막대기로 변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하나의 막대기는 같이 되고, 두 개는 텐트, 세 개는 시소가 되는 등 아이들이 막대기를 활용해 더 높고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이번 작품은 박현민 작가 특유의 입체적인 연출과 과감한 시점 변화가 특징이다. 평면의 선이 면을 이루고 페이지를 위로 넘기며 공간이 수직으로 확

장되는 구성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또 표지를 제외하면 글자가 없고 등장인물의 표정도 생략해 몸짓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독자가 장면 사이를 스스로 상상하며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재단은 '엄청난 막대기'를 전국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1800여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은 전액 재단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출간을 기념한 특별 전시 '눈 너머 막대기'도 16일부터 28일까지 NC문화재단 사옥 2층 '스튜디오 화이트'에서 열린다. /최빛나 기자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열어
넥슨재단 등 12개 파트너사 참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2026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 등 12개 파트너사가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넥슨재단, 슈퍼셀,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방식인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로 행사를 지원한다.

신규 파트너사로는 광주정보문화산

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합류했다. 두 기관은 기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경기장 대관과 이스포츠 경기 운영을 지원한다. T1 이스포츠 아카데미도 올해 처음 참여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넥슨재단과 슈퍼셀은 각각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IP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카카오 게임즈는 체험형 CSR 콘텐츠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하며, 한국타이어아눔재단은 45인승 '빅음버스'를 제공한다. AW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념품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빅픽처인터랙티브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을 맡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참가자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홈앤쇼핑, 창사 15주년 'CI 리파인' 공개

‘中企 상생·고객과 호흡’ 정의

홈앤쇼핑이 창사 15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의 본질을 새롭게 정립한 'CI 리파인'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번 CI 리파인은 상생과 공익이라는 기업 정신 아래 합리적인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홈쇼핑 채널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만들었다. 홈앤쇼핑을 이를 통해 '간간함이' 찾은 정답, 홈앤쇼핑'이라는 슬로건에 따

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기업 철학과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 고객의 안목이 만나는 플랫폼을 정의했다. 새로운 CI

는 ▲고객의 본질에서 시작하여(Essential) ▲고객의 일상에 닿아(Connect) ▲고객의 자부심이 되는(Confidence)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KBS ◇보임 〈국장급〉△콘텐츠전략본부 방송100년·세계청년대회방송단장 배용화

부음 ▲한국회(JK International 매니저엔지니어)씨 별세, 노은선씨 남편상, 한희라(헤럴드경제 정책부장)씨 동생상, 한희경(우리은행차장)씨 오빠상, 김영

훈(RWKorea 본부장)·하정완(YTN 광고 기획팀장)씨 처남상 = 7월 13일 오후 8시, 가족장, 발인 미정. 61-0403-729-997 ▲김영희씨 별세, 강다영(삼성전자 부장)·강미유씨 모친상 = 7월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 02-3410-3151